

읽을거리

제현주 『일하는 마음』

파트너

조민영 님

발제자

이승준 님

시간표

[1] 19:40 오프닝 & 독후감 토크

[2] 20:10 북 토크

[3] 21:20 쉬는 시간

[4] 21:35 북 토크

[5] 23:00 마무리 발언

[6] 23:20 모임 끝!

공지사항

- 오늘은 <리서치 하는 데요> 시즌4 3번째 모임입니다. 별책부록 모임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부록은 트레바리 <리서치 하는 데요> 3번째와 4번째 모임 사이에 별도로 진행하는 클럽장 주관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트레바리 아지트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임에서는 UX 리서치에 대한 생각과 경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북토크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고민과 안부를 여전히 잔잔하고도 단단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모임에 대한 날짜와 장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시즌4 단체방을 통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럽장 소개

'레드버스백맨'은 빨간색 광역버스에 백팩을 메고 타는 제 모습을 담은 첫 번째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제가 업으로 삼은 일은 리서치이고, 라이터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UX 리서처에게는 현상을 들여다보는 내적 호기심,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묻는 공간, 표면과 근본을 구분해서 사고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레드버스백맨'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뉴스레터를 통해서 제 평소의 생각을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북토크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법

1. 우리의 다름을 배려하며

- 트레바리에서는 매달 1권의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담아 독후감을 씁니다.
-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하다 한 달에 1번 모여 다른 생각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려면 성장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우리 흔쾌하게 나와 다른 생각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다른 생각을 전달할 때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담아주세요.

2. 자기만의 생각을 공유하며

- 함께 읽고(배움) 생각을 나눔으로써(공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알아차리고(인지), 연결된 상태에서 생각에 변화(확장)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생각을 공유할 때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고, 관계의 확장, 사고의 깊이에 변화가 생긴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북토크

3. 꾸준히 연결된 상태로

- <리서치 하는데요> 모임에서 '사용자'를 바라보고 '리서치'를 생각하는 자기만의 코어와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지길 기대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카카오톡 채팅방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을게요.
- 멤버끼리 서로의 안부를 가끔 묻고 까닭 없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함께 만들기로 해요.

Intro

"일하는 마음"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닌, 일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작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곤 합니다. 마치 마라톤 트랙 위에서 끝을 보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책은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성장과 전문성, 탁월함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뜨립니다. 오늘 북토크에서는 "덜 조심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이 주는 위로와 용기를 나누며 각자의 여정을 돌아볼까요?

북토크

BOOK TALK 1 : 일하는 마음의 여러 모습들

1. 잘하고 싶은 마음과 요즘 내 걸음의 속도

- 저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오히려 '애쓰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눈앞의 과업과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당시에는 몰랐지만 매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한 발 한 발을 제대로 내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 꾸역꾸역 하는 힘과 책임감

- 저자는 "계속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 이르게 되는 어떤 경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될 때도 꾸역꾸역 하다보면" 달라지는 순간이 있나요?
- 책임감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3. "I hear you"의 마법

- 저자가 소개하는 "I hear you"라는 말이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 "납득할 수 없는 대분을 연기"하는 순간에도, 서로의 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 서로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4.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

- 저자는 꾸역꾸역 해나가는 동기가 대개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움직이시나요?
- "내적인 동기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그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꽤 운 좋은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북토크

(쉬는 시간 전에 잠시!)

번추위 선정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는 게 아쉬울 것 같다면 번개로 모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번개는 필수가 아니니, 멤버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자율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두구두구, 이번 달 번개 추진 위원회를 맡을 멤버 1명을 선정해 보세요.

혹시 이번 달 번추위에 지원하실 멤버가 계실까요? 또는 함께 논의하여 멤버 1명을 선정해 보세요.

번개 추진 위원회로 선정된 멤버는 다음 모임 전까지, 오늘 멤버들과 함께 번개를 진행해 보세요. 맛집 투어, 미술관, 각종 액티비티 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을 나누고 함께 즐겨요.

BOOK TALK 2 : 성장을 넘어 탁월함으로

1. 필요 이상을 쏟아붓는 시기

- 저자는 CBS 김현정 PD의 말을 빌려 "10분짜리 인터뷰를 위해 밤을 꼬박 새워" 준비했던 시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필요 이상'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 "자신만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 전문성과 탁월성 사이

- 저자는 "전문성이라는 디딤돌이 정적인 것이라면, 탁월성은 끊임없이 이것과 저것을 조합하며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디딤돌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경험"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 그때 "조직의 목표와는 별개로, 개인의 목표 설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3. 불편함을 나누는 용기

- 저자는 "불편한 것을 나눌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불편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무감해지도록 자신을 설득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 불편함을 의식하고 정의된 문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북토크

Closing

오늘 우리는 '일하는 마음'을 통해 각자가 달리고 있는 트랙 위에서의 자기만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구조화된 시스템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탁월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꾸역꾸역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작은 성취들과,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용기가 모여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1기, 2기, 그리고 그 이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역꾸역, 어찌어찌해 볼까요? 그리고 또 잘 안 될 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 책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마무리 토크

- 오늘 모임은 즐거우셨나요?
-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트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다음 모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